

조선대 靑전당 개관 1주년 '직조퍼포먼스'



조선대 디자인학부 섬유디자인전공 학생들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관 1주년을 맞아 시민들이 가져온 헌옷을 활용, 사랑의 모자이크 카펫을 만드는 '씨실 날실-릴레이 패브릭 직조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조선대 제공>

광주대 '나눔&희망 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



광주대(총장 김혁중)는 최근 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실습실에서 국소숙 부총장과 음식 토나 교수,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희망-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를 갖고 이날 담근 김치 250여 박스를 남구지역 복지 시설 등에 전달했다. <광주대 제공>

남경종합건설, 연탄 1만5000장 기탁



남경종합건설 주식회사(회장 최영중)는 지난 30일 KBS 광주방송국을 찾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연탄 1만5000장(시가 870만원)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탁했다. <남경종합건설 제공>

목포수협 조합장에 김청룡씨



전임 조합장의 중도사퇴로 지난 29일 치러진 목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김청룡(53)씨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시된 개표에서 967(38.8%)표를 얻었다. 김 당선자는 진도 출신으로 목포수협 비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임기는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인 2019년 3월 20일까지다. /목포=김준기기자 kjs0533@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송길영부사장 초청 강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1일 오후 7시 남구 송암동 광주CGI센터에서 송길영(사진) 다음소프트 부사장을 초청, '빅데이터 자체가 콘텐츠'라는 주제로 강연회(G.Talk)를 진행한다. 송 부사장은 '김제도의 특색유', '철전' 등 방송 프로그램과 다수의 강연을 진행한 빅데이터 전문가다. /김대성기자bigkim@

“파독 간호사들 50년 삶은 한편의 인생 드라마”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 책 낸 재독 칼럼니스트 박경란씨

올해는 한국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파견된 간호사는 약 1만여명에 달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일보에 '파독 50년 호남 출신 간호사 인생 스토리'를 연재했던 고희출판 재독 칼럼니스트 박경란(45)씨가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 '나는 파독 간호사입니다'(정한 책방 간)를 펴냈다. '국가, 가족, 이웃을 위해 떠나야만 했던 고향은 우리 말들의 소명과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2016년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책은 독일인 남편이 스파이 혐의를 받아 동독 교도소에 한국인 최초로 수감됐던 장면까지, 간호사의 삶을 넘어 의사로 일하는 이민자세, 한인 사회에 한국 무용을 알린 김근선씨 등 모두 21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메일 인터뷰에서 박씨는 “이번 책에는 신문에 실렸던 12명의 간호사를 비롯해 신문에 실지 못했던 이들이 이야기로 함께 담았다”고 했다. 호스피스 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파독 간호사들과 인연을 맺은 박씨는 술한 우여곡절을 겪은 간호사들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걸 느꼈다고 했다. “인터뷰가 아닌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수감생활·무용홍보 등 21명 이야기를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 선정 광주일보 '파독 50년' 연재 독일서 사는 2·3세대 발골도 중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저는 옆에서 묵묵히 듣는 것으로도 충분했어요. 50년의 파독 역사를 그 짧은 시간에 다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끊고 일어서야 할 때도 있었습니. 하지만 이들은 막상 언론이나 책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도 책에 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잘 살고 있다는 이미지로 남고 싶어서 고국에 있는 친지나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 지난 4월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파독 간호사들이 직접 출연한 '헨리 밀러의 인생' 공연이 열려 깊은 감동을 줬다. 박 씨는 이 작품의 대



본을 쓰고 연출, 기획 등을 모두 도맡았다. “어르신 한 분은 하나의 도서관이라 하잖아요. 저로서는 지나온 역사를 마주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수고롭게 획득한 삶의 경륜을 거쳐 얻는 기본이랄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한 편의 근현대사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 일환으로 대본도 썼고 책도 출간하게 되었어요. 해외 이주 역사를 보면 이미 사라진 다음에 검토하고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독 역사는, 증언자들이 현존하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습니.” 올해가 파독 50주년이라 관심이 많지만 그 관심이 식어버리는 것도 문제다. “제 생각엔 파독 근로자분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건립이나 추모비 등 외형적인 사업적 측면도 절실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발자취를 남겨놓을 수 있는 기록작업이나 그들이 독일에서 걸려낸 2세들의 역량을 키워내 우리나라의 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세대 파독 근로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독일에서 사는 2세대, 3세대의 발골도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씨는 앞으로 책에 소개되지 않은 파독 간호사 이야기 뿐 아니라 파독 광부, 그리고 그들의 2세에 대한 글을 쓰고 그것들을 장편동화나 소설로 재구성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치매에 관한 글도 써볼 계획이다. 전남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잡지 편집장, 기자 등으로 일했던 박씨는 2007년 남편을 따라 독일로 이주했으며 지금까지 '나는 독일 맥주보다 한국 사람이 좋다' 등의 에세이집을 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를 깨우는 대화' 동아리 최우수상

전남복지재단,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성과발표회

'2016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발표회'에서 '나를 깨우는 대화' 동아리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사회복지 학습동아리는 전남복지재단으로부터 한 동아리당 150만~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3월부터 10월까지 학습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9일 목포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를 깨우는 대화'를 비롯해 '동행', '드림뮤직', '세대기들의 손짓', '성장과 치유를 꿈꾸는 사람들', '아이 좋은 모임', '짙단' 7개 동아리가 우수 동아리로 선정됐다. <사진> '나를 깨우는 대화' 동아리는 스피치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가 갖춰야 할 소통 능력을 기르고, 자신감 향상과 확실한 자기 표현력을 키움으로써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을 습득했다.

소심한 성격이라고 했던 한 동아리회원은 “동아리활동 후 이전보다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변화돼 좋았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영광호 전남복지재단 사무처장은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 동아리활동을 해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직무능력이 높아지고 동아리 회원 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대내 사회복지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개발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관미 엘로드 대표 광주 47호 '아너소사이어터' 회원 가입



희망2017나눔캠페인 기간 광주 첫 아너소사이어터 회원이 탄생했다. 박관미(여·60) 농업회사법인인 L·LORD(엘로드) 대표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년 내 1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터' 광주 47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사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9일 광주 모금회 대회의실에서 박관미 대표, 조건국 광주 아너소사이어터 대표, 김재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이용환 시민감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너소사이어터 가입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농업회사법인인 L·LORD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성당 및 봉사회 등을 통해 봉사하

는를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박 대표는 “60번째 생일(11월 18일)을 기념해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 아너소사이어터에 가입했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역의 인재로 양성하는 장학 사업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동아시아 樂의 문화' 학술대회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조운호 철학과 교수·사진)은 2일 오후 1시 전남대 G&R Hub에서 '동아시아 樂의 문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국 안휘대학 휘학연구센터·일본 오카나와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오랜 역사문화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온 '락의 문화'에 대한 각국의 감상과 사유를 토론한다.

'락(樂)'은 동아시아인들의 삶에서 공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감성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는데,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락 문화의 형성과 변형' '락의 공동체와 유토피아'라는 측면에서 락의 문화를 조명했다. /박성진기자 sky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정용석(씨엔엠 건설 대표)·김혜경씨 장남 영일군 이문식·양호임씨 차녀 주영양=3일(토) 오후 5시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정대수·김순덕씨 차남 철원군 광석봉(화산관업소 생산부장)·양명인씨 장녀 은지양=3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62-385-7000.
▲강을삼·김금옥씨 장남 경남군 박형석·남숙희씨 장녀 지현양=3일(토) 낮 12시4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나중천(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임인순씨 차남 영수군 유영재·임양임씨 막내 우경양=10일(토)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동구 무등파크호텔 4층 파크마리아주, 문의 010-3605-0850.

- 주시 서구 매월동 매월동화로구이 062-374-8592.
▲송원고 총동문회(회장 박전갑)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3일(토)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마루동 라비앙웨딩컨벤션 1층 문의 062-384-7447.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최창열) 월례회 5일(월) 오후 6시 화랑궁회관 062-224-1800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6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의 밤=6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알펜시아웨딩컨벤션(구 갤러리아웨딩홀) 문의 유은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알림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

- 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중독문제(알코올, 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 무료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www.gsgacc.or.kr) 문의 062-714-123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인소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

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 수강료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 수강료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무료

일 오전 11~12시. 오키나와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실현문화연구원=북자, 중국자, 훈자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품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아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박영근씨 별세 박진희씨 부친상,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씨 장인상=발인 2일(금) 전북 전주시 뉴타운장례식장 VIP실 063-284-4444.
▲이수영씨 별세 이우근·순근·순금·정금·미란·정란 부친상 김주성·문장일·이창엽·김용기·방부상 최윤경·양정화 시부모상=발인 2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손금태 님(남/88세)
子/子婦: 손태성, 위주/최경란
女/婿: 손태희, 박미/임태관
발 인: 12월 1일
장 지: 영도목산 선영
연락처: 227-4381
401호 故김경애 님(여/87세)
子/子婦: 최경남/김경자, 문신/홍순정
女/婿: 최경숙/서광중, 순하/김성환
발 인: 12월 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101호 故나명숙 님(여/76세)
子/子婦: 안동원/김춘희, 홍식/이영자
女/婿: 안미숙/박성만, 미경/황대현
발 인: 12월 2일
장 지: 화순묘원
연락처: 227-4000
102호 故송순희 님(여/75세)
子/子婦: 윤성환/최현자, 경관/이경숙
女/婿: 윤미경/최현수
발 인: 12월 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金 昌 宗 喪 禮 式 場
대표이사 구 제 길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